

조모의 역할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김 효 심

〈 목 차 〉

I. 서 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목적	1. 측정도구
2. 연구문제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 결과
1. 노년여성의 조모역할 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1. 연구문제 1
2. 조모의 역할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에 관련된 변인	2. 연구문제 2
	3. 연구문제 3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I. 서 론

1. 연구목적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조부모-손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취사분리형 안·밖거리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여성노인이 조모로서 갖는 역할수행과 함께 손자녀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조모와 손자녀모두의 건전한 적응을 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생활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제주지역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동일 울타리 내에서 취사를 분리하는 안·밖거리형 생활방식에 따른 가족의 개념규정에 대한 문제이다(이광규, 1984). 즉 부모와 미혼자녀, 그리고 결혼한 아들부부와 그 자녀가 한 울타리 내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미혼자녀는 안채(또는 바깥채)에서, 결혼한 아들가족은 바깥채(또는 안채)에서 각각 독립된 취사를 하는 경우, 이를 한 가족으로 보느냐 두 가족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는 핵가족이고 외형상 의식상으로는 직계가족'이라는 특수가족 개념으로 파악한다고 해도(현용준, 1973) 가족수의 해석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최재석(1966, 1979)과 이광규(1984) 등은 경제생활·분리(주로 취사의 분리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동거와 별거로 구분하고 있다. 즉 취사분리의 안·밖거리형 가족형태가 의식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해도, 경제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생활은 2개의 가족 기능을 하는 핵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김혜숙(1985)의 연구에서도 노인 일인가족의 범주에 동일 울타리 내에서 취사를 따로하는 사례가 포함되고 있으며 그 중 장남가족과 한 울타리 내에서 살면서 취사를 따로하는 경우도 있어 육지부 가족의 동·별거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준다.

여러 문헌들에서 위와같은 안·밖거리형 가족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여성노인의 근면성과 검소성, 독립적 성향이 언급되고 있으며(강병인, 1977; 현용준, 1970; 한창영, 1978; 김혜숙, 1984·1985), 누구보다도 '제주의 정신'을 뚜렷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 여성이라 지적되고 있다(양영웅 외 3인, 1990).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노부모 부양 및 보호가 '효'사상을 근거로 일상생활의 규범과 신념으로 당연시되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주도 여성노인의 태도는 노동과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체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²⁾.

그러나 취사분리형 안·밖거리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관계의 특성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차이를 밝혀낸 결과가 드문 현 상황에서는, 제주의 안·밖거리형 가족구조가 갖는 장·단점들을 하나씩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엄격히 한다면 취사공동형 동거가족과 분가 가족으로 나누어야 하겠지만, 3가지의 가족형태, 즉 동거가족(취사공동), 안·밖거리형 가족(취사분리), 순수 별거가족으로 나누어 조모와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및 조모의 역할수행 정도의 차이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제주지역 특유의 관행을 고려할 때, 육지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유형과도 다른, 즉 주거 및 경제를 모두 함께 하거나, 주거 및 경제 모두 완전 분가하는

1) 신용하(1990)는 근면, 성실, 정직, 진취, 협동의 정신을 제주적인 정신이라 하였다.

2)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은 핵가족적 성격을 지닌 독립형 가족으로서 이것이 여자중심이라는 점(조혜정, 1982; 이광규, 1984) 즉 일할 수 있는 한 움직여 자식들이나 손자들 신세는 지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이 강한 노년여성이 독자적인 생활단위를 이루는 가족형태이다. 특히 노모가 사망하고 노부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며느리가 모시게 되지만, 노부가 사망하고 노모만이 남았을 경우 몹시 쇠약하지 않으면 노모는 독립된 생활을 하여 자녀에게 부양의 의무를 지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는 노년여성 한 사람으로 된 일인가족율이 높다. 위에서 언급한 김혜숙(1985)의 연구에서도 조사된 일인가족 60사례 중 55사례가 여성노인 일인가족인데 그 이유는 남성보다 장수하고, 생활력과 자주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와는 다른 안·밖거리형 가족이 가진 차이점이 분명 나타나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노년여성들로서 제주시내 국민학교 5,6학년 아동의 조모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조모 역할수행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가족형태와 그 밖의 관련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 2)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 수준은 어떠하며, 이는 가족형태와 그 밖의 관련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 3) 조모의 역할수행과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노년여성의 조모역할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현대에는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므로 과거에 부모와 조부모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조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시기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평균수명 또한 연장되어 그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부모 역할이 장·노년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서동인,1989). 조부모가 손자녀와 밀접하고 의미있는 접촉을 하는 것은 노년기의 가치있는 과업이며(Duvall & Miller,1985), 이를 통해 새로운 역할과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조부모 역할은 노후 적응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손자녀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또한 바람직한 여건이 된다(Kivnick, 1983.Kornharber,1985). 단지 피부양자로서만 노인을 인식하기보다는 가족과의 상호작용관계 측면에서 노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호혜적 관점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경험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미래 노년인구의 주요 구성체가 될³⁾ 여성노인의 주된 관심 영역은 훨씬 가정지향

3) 최근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양적 증가를 볼 때, 1970년 말에 65세이상의 노인이 전인구의 3.9%인 136만 명이던 것이 1988년에는 전체인구 4,279만명중 4.7%인 202만명으로 늘어 났으며 2000년에는 7%, 2025년에는 14%로 증가하여 25년만에 2배로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으며(경제기획원,1989), 이같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선진국의 항아리형 구조로 변화시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최인현,1990). 그 중에서도 여성이 노년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의 성비는 60.7명으로 여성노인의 과다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65~69세에는 74.2명, 70~74세에는 63.4명, 75~79세에는 50.5명, 그리고 80세이상에서는 33.3명으로 연령이 더해갈수록 남성노인의 성비는 낮아져 여성노인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윤종주,1988).

적이며(유양숙,1978), 일반적으로 조부보다 조모가 조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Thomas,1986). 본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제주지역 여성노인의 경우도 '손자녀와 노는 일'을 가장 즐거운 일이라 응답하고 있어(한창영,1976) 조모로서의 역할을 통해 얻는 만족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부모로서의 역할획득은 중요한 생활 사건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더 돈독한 심리적 유대를 갖는 조모와 손자녀관계를 조모의 역할수행과 손자녀와의 유대감을 조사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서동인(1989)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혼계자 역할·대리모 역할·생활간섭자 역할·가계의 역사와 성역할 조연자 역할·손자녀지지자 역할·물질적제공자 역할 등 6가지 영역으로 구분, 조모의 역할수행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외 5~18세의 손자녀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Kornhaber & Woodward,1981), 조모의 역할수행을 5영역 즉 가계전수자로서의 역할, 훈육자의 역할, 미래 가족의 역할모델(role model)로서의 역할, 마술사와 동일한 역할, 대리모 역할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홍기형(1984)은 노년여성이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 가능한 일정 역할에 대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달자로서의 역할, 오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기반으로 젊은 가족 구성원의 상담을 맡아주는 역할, 가족이나 친족들 간에 야기될 수 있는 갈등 대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어린 손자녀에 대한 가정교육담당자로서의 역할, 적극적인 가사활동에의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Cherlin과 Furstenberg(1985)는 10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수행에 대한 여러 내용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교환과 손자녀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2가지로 묶어지는 역할내용을 규명해 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①가정교육자 역할, ②가사조력자 역할, ③가계전달자 역할, ④손자녀 지지자 역할, ⑤물질적 제공자 역할, ⑥생활 간섭자 역할 등 6가지를 조모역할수행을 평가할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모와 손자녀사이의 유대관계는 가족간의 결속도 연구 및 주관적 유대감이나 친밀감에 관계된 선행연구들을(Bengtson & Cutler,1976;Bengtson & Schrader,1982;조병은,1988;최정혜,1991) 기초로 하여, 손자녀가 느끼는 조모에 대한 친밀감으로 규정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노년기가 60세 혹은 65세부터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년여성을 조모의 역할을 획득한 상태에 있는 다시말해 조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그와 함께 노화를 자연스러운 인간발달의 한 과정이자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요인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2. 조모의 역할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에 관련된 변인

1) 가족형태

조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시간과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조모의 역할수행과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모와 손자녀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로 서양의 가족에서는 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지만(Troll, 1972; Learner, 1982), 한국가족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별거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노인의 의식을 반영한 것들임을 감안할 때 확대가족을 선호하는 노부모와 핵가족 형태를 선호하는 성인자녀들간의 의식차로 인한 갈등유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인들 가운데도 규범적 측면에서 동거를 이상적으로 여기지만 내용으로는 자녀세대에 의존하기보다 자립할 때가 더욱 더 적응에 유익하며 자녀와의 결속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혜, 1991). 따라서 이 두가지가 절충된 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안·밖거리 가족의 특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아 실증적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2) 손자녀의 연령 및 성별

어느 연령층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조부모의 역할수행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손자녀의 성별 역시(Bengtson, 1985) 삼세대가족내의 세대간의 애착에 영향을 준다. 조모는 특히 손자출생에 대해 기뻐하며(구자순, 1989), 사후에 제사를 지내 줄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3) 조모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여부

노인세대는 생애를 통해 축적된 많은 지혜를 차세대에 전수해 주고 싶은 욕구와 제2의 전환기를 맞아 성숙한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그런데도 사회적 접촉기회는 점차 좁아지며 특히 노령화,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사별경험 등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수가 많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여성노인들의 실질적 연령의 범주는, 20년에서 35년의 연령차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집단내의 연령차를 무시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젊은 조모일수록 손자녀의 양육, 충고, 훈육 등 조부모역할에 책임감을 더 갖고 있다고 한다(Thomas, 1986b). 연령은 상태나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에 영향을 주며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연계(Wood & Robertson, 1976) 및 자녀와 손자녀간의 긴장과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gtson, 1985). 학력(Markides & Martin, 1979)과 건강상태(Liang, 1982; Quinn, 1983; 김종숙, 1986; 김명자의 1인, 1991)는

주로 생활만족도 등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서동인의 연구결과(1989)는 조모의 학력은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건강상태는 조모의 역할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사별해도 여성들은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의 타격을 많이 입는다고 한다(Thompson, 1984). 따라서 조부의 생존여부와 조모의 경제활동 여부도 변인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4) 모의 취업여부와 모의 태도

모는 손자녀와 조부모의 중간세대로서 세대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모가 가진 조부모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자녀에게 전이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대상 손자녀의 연령을 고려할 때, 모의 태도는 조모와 손자녀의 상호작용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인(1989)은 모의 태도가 조모와 손자녀의 접촉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밝혀내고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접촉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조모의 역할수행도 모의 태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모의 태도가 좀 더 적극적일 때 조모의 역할 수행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태도를 조모와 손자녀의 유대관계에 대한 조력태도로 규정하여 조사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삼세대 가족관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모의 취업여부를 변수에 포함시켜 조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 도구

1)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 관계척도 및 조모의 역할수행척도

조모와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척도는 손자녀가 느끼는 조모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로서 4문항으로 되어 있다. 합산점수를 산출하였으므로, 4점부터 20점의 범위로 나타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므로 손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조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조모역할 수행 척도는 가정교육자 역할 7문항, 가사조력자 역할 3문항, 가계전달자 역할 3문항, 손자녀 지지자 역할 4문항, 물질적 제공자 역할 2문항, 생활 간섭자 역할 5문항 등, 6가지 영역의 역할수행 정도를 묻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형 척도이다. 각 영역별로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으며, 1.0부터 5점의 범위를 가진다. 총 역할수행의 정도는 6개 요인의 평균점수를 합하여 산출하였고 6.0점부터

30점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손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조모의 역할수행의 정도가 많음을 나타낸다. 양 척도의 타당도는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등에 의해 검증하였으며, 신뢰도는 문항간 내적 일치도 방법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Chronbach's α 계수의 범위는 .70에서 .81사이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표 1>

<표 1> 조모역할 수행과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척도의 신뢰도 계수

구 분	가 정 교육자 역 할	가 사 조력자 역 할	가 계 전달자 역 할	손자녀 지지자 역 할	물질적 제공자 역 할	생 활 간섭자 역 할	총 역 할 수	조 모 손자녀 유 대
신뢰도 계 수	.79	.78	.79	.77	.79	.81	.70	.76

2) 관련변수 측정을 위한 문항

본 연구의 척도에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조모의 역할수행 및 조모와 손자녀와의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족형태외에 손자녀의 성별, 조모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와 모의 취업 및 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조력태도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모의 역할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조사대상자의 모집단은 1992년 7월 제주시에 있는 4개 국민학교 5,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조모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아동의 지각을 통한 평가라는 점을 고려 유의표집을 하였다. 총 367부의 질문지중 부실기재된 경우를 제외한 30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PC-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퍼센트, 평균, t 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Range-Test인 Duncan-Grouping을 통해 사후검증하였고 Pearson 상관계수가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표 2> 조사대상 손자녀의 평균 연령은 12.2세이며, 조모들의 연령은 평균 68.8세이다. 또한 가족형태의 경우, 취사공동의 동거 가족은 53사례로 응답자의 19.1%, 순수 별거가족은 193사례로서 69.7%, 안·밖거리 가족형태는 31사례로서 11.2%로 나타났다. 표집지역이 제주 전역을 거의 포함시킨 한 연구에서 취사공동의 동거가족이 20%, 취사분리의 안·밖거리형 가족은 12%, 완전히 분가하고 있는 가족은 68%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김혜숙: 1984의 고부간의 분가상태표 재분석),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구 분	집 단(빈도)	%	구 분	집 단(빈도)	%
손자녀 성 별	남 (154)	51.3	가 족 형 태	동 거 (53)	19.1
	여 (146)	48.7		안 · 밖거리 (31)	11.2
손자녀 연 령	9~11세 (172)	57.3	별 거 (193)	69.7	
	12~13세 (128)	42.7	모 의 취 업	취 업 (142)	47.8
조 모 연 령	51~60세 (53)	18.4	비 취 업 (155)	52.2	
	61~70세 (105)	36.5	부 의	32 ~ 39세 (89)	31.1
	71~80세 (95)	32.9	40 ~ 49세 (173)	60.5	
	81~91세 (35)	12.2	연 령	50 ~ 62세 (24)	8.4
조 모 학 령	무 학 (75)	29.6	모 의	31 ~ 39세 (182)	71.1
	국 졸 (68)	26.9	40 ~ 49세 (97)	27.1	
	중 졸 (60)	23.7	연 령	50 ~ 51세 (5)	1.8
	고졸이상 (50)	19.8	부 의 학 령	국 졸 (2)	0.7
조 모 건 강 상 태	좋 다 (115)	39.1	중 졸 (16)	5.5	
	보통이다 (131)	44.6	고 졸 (42)	14.4	
	좋지않다 (48)	16.3	대 졸 이 상 (231)	79.4	
조 부 생 존	생 존 (134)	45.6	모 의 학 령	국 졸 (5)	1.7
	사 망 (160)	54.4	중 졸 (42)	14.7	
경 제 활 동	한 다 (73)	32.4	고 졸 (71)	24.7	
	않 는 다 (152)	67.6	대 졸 이 상 (169)	58.9	

주) + 빈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value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 : 조모의 역할수행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가족형태, 조모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여부, 손자녀의 성별, 모의 취업여부, 모의태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수행은 전체 평균이 16.48로서 대체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영역별 역할수행의 평균 점수는 가정교육자 역할이 3.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물질적 제공자 역할, 가사조력자 역할, 가계전달자 역할, 손자녀 지지자 역할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간섭자 역할이 2.0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조모의 역할수행 정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총 역할 수행		16.48 (3.75)
영역 구분	가정교육자 역할	3.61 (0.73)
	가사조력자 역할	2.73 (1.16)
	가계전달자 역할	2.69 (1.03)
	손자녀 지지자 역할	2.57 (0.99)
	물질적제공자 역할	2.81 (1.04)
	생활간섭자 역할	2.09 (0.62)

가족형태와 그 밖의 관련변수에 따른 조모의 역할수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Range-Test인 Duncan-Grouping을 통해 사후 검증하였다.〈표 4〉 그 결과, 가족형태에 따른 조모의 전체적 역할수행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조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조모의 전체적 역할수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연령이 많은 75세이상 노년후기 조모의 총역할수행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51~64세의 노년초기, 65~74세의 노년중기순이었다. 노년기에 연령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사회활동 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김선희,1989), 젊을수록 역할수행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이 같은 결과는 제주노인의 연령과는 무관한 활동에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학력에 따라서도 조모 역할수행정도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조모의 역할수행이 낮아진다. 모의 취업 여부가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데 반해 모의 태도는 조모의 역할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조모의 역할수행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손자녀의 성별과 조모의 건강상태, 경제활동여부, 그리고 조부생존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역할수행의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가사조력자 역할, 가계전달자 역할, 생활간섭자 역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가사조력자역할수행 정도는 동거가족, 안·밖거리 가족, 별거가족의 순으로 조모의 가사보조 역할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다. 동거가족의 경우 노모가 가사를 도와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하는 점과도(조병은·신화용,1991)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계전달자 역할은 가족형태 중 별거가족의 조모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안·밖거리형 가족, 동거가족순으로 나타났다. 별거가족의 조모가 집안의 역사를 얘기하

〈표 4〉 가족 형태 및 그 밖의 관련변수에 따른 조모역할 수행

구 분	집 단	조 모 의 역 할 수 행							
		가정교육자 역할 M DG	가사조력자 역할 M DG	가계전달자 역할 M DG	손자녀 지지자역할 M DG	물질적 제공자역할 M DG	생활간접자 역할 M DG	조모의전체 역할수행 M DG	
가 족 형 태	동거가족	3.36 B	3.25 A	2.21 B	2.48	2.64	2.36 A	16.08	
	안·밖거리	3.69 A	2.83 AB	2.84 A	2.89	2.84	2.14 AB	17.12	
	별거가족	3.59 AB	2.64 B	2.85 A	2.54	2.92	1.96 B	16.41	
	F 값	1.69	2.33*	3.36*	2.88	0.72	4.77**	1.07	
손자녀 성 별	남	3.56	2.78	2.64	2.46	2.67	2.07	16.01	
	여	3.66	2.68	2.74	2.69	2.95	2.12	16.71	
	T 값	-1.21	0.68	-0.84	-1.96	-2.33*	-0.79	-1.66	
조 모 연 령	51~64세	3.69	2.86	2.79	2.73	3.11 A	1.99	16.98 AB	
	65~74세	3.48	2.52	2.64	2.50	2.61 A	2.07	15.84 B	
	75~91세	3.63	2.95	3.00	2.67	2.95 B	2.07	17.09 A	
	F 값	1.76	2.54	2.00	1.25	5.15**	0.46	6.24***	
조 모 학 력	무 학	3.48	2.72	2.52	2.41 B	2.50	2.07	15.51 A	
	국 졸	3.53	2.81	2.99	2.67 AB	2.88	2.05	16.67 AB	
	중 졸	3.76	2.79	2.77	2.85 A	3.18	2.11	17.39 A	
	고졸이상	3.72	2.69	2.92	2.59 AB	3.00	1.93	16.82 AB	
	F 값	1.69	0.12	2.24	1.95	4.17**	0.86	3.05*	
건 강 상 태	중 다	3.68	2.70	2.71	2.57	2.83	1.96	16.42	
	보통이다	3.60	2.82	2.87	2.73	2.95	2.08	16.89	
	중지않다	3.38	2.65	2.71	2.42	2.76	2.17	15.88	
	F 값	2.00	0.38	0.06	1.43	0.54	1.27	1.21	
조 생 부 존	생 존	3.65	2.68	2.77	2.68	2.93	2.06	16.68	
	사 망	3.56	2.77	2.61	2.45	2.69	2.12	16.06	
	T 값	1.04	-0.66	1.33	1.93	1.93	-0.88	1.41	
경 제 활 동	한 다	3.62	2.71	2.69	2.68	2.76	2.02	16.23	
	않 는 다	3.57	2.62	2.68	2.52	2.99	2.06	16.40	
	T 값	0.35	0.44	1.33	0.84	-1.04	-0.41	-0.24	
모 취 의 업	취 업	3.67	2.89	2.61	2.57	2.79	2.10	16.48	
	비 취 업	3.56	2.61	2.77	2.58	2.83	2.10	16.29	
	T 값	1.26	2.11	-1.36	-0.01	-0.32	0.06	0.42	
모 의 태 도	적 극 적	3.93 A	3.03 A	3.09 A	3.11 A	3.25 A	2.13	18.40 A	
	보 통	3.48 B	2.63 AB	2.75 A	2.46 B	2.77 B	2.01	16.05 B	
	소 극 적	3.15 C	2.48 B	2.20 B	2.00 C	2.35 C	1.96	13.72 C	
	F 값	17.62***	3.37*	9.06***	18.40***	10.73***	1.42	24.45***	

* P<.05 ** P<.01 *** P<.001 DG:Duncan-Grouping

여 주는 등의 가계전달자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별거가족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주로 언제인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서, 집안 행사 또는 명절 등 목적성을 띤 행사를 통해서 주로 접촉하는 별거가족의 경우 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의 빈도나 내용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활 간섭자 역할은 가족형태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동거가족이 안·밖거리형 가족과 별거가족보다 생활간섭자의 역할수행 정도가 높았다. 비록 조부모라 할지라도 손자녀와 서로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서구와 달리 (Kornhaber, 1985), 조부모의 간섭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움을 토로하는 손자녀가 많은 (서동인, 1989) 우리의 가족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인다. 또 동거가족과 안·밖거리 가족이 생활간섭자 역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 울타리 내에 살면서 손자녀와의 접촉기회는 보장되는 경우라고 해도 그 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간과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의 관련 변수들에 따른 각 영역별 조모의 역할수행 정도의 차이를 보면, 가정교육자 역할은 모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사조력자 역할은 모의 취업여부와 모의 태도에 따라서 적극적일 때 더 높은 역할수행 정도를 보인다. 모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 조모로부터 받는 도움이 상당부분 동거·비동거와 관련된다는 점과도(조병은·신화용, 1991)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가계 전달자 역할 역시 모의 태도에 따라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물질적 제공자 역할은 조모의 연령과 손자녀의 성별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모가 65세 미만인 경우 물질적 제공자 역할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75세 이상인 집단의 경우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여성노인들의 활동시기가 육지부 노인들과는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한 한은 이어진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이 젊을수록 조모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손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손자보다 손녀에게 물질적으로 용돈이나 선물 등의 물질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녀보다는 손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역할 수행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반대의 현상을 보여 준다. 대체로 제주지역 가족에 있어서는 여성의 자율성과 역할이 신장되어 있어 육지부 가문의 예속적인 부녀자의 위치와는 대조적인 생활을 하며(양영웅 외 3인, 1990), 가족관계도 유교의 전통적 관습이 무시된 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융통성을 지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김태현, 1980) 조모의 손자에 대한 역할수행이 손녀보다 높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조모의 손자녀 지지자 역할수행은 모의 태도에 따라 유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조모가 손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거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해주는 손자녀지지

역할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문제 2 :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수준은 어떠한가, 이는 가족형태, 조모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여부, 손자녀의 성별, 모의 취업여부, 모의 태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조모와 손자녀의 유대관계는 평균이 11.02로서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족 형태와 그 밖의 관련변수에 따른 조모-손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Range-Test인 Duncan-Grouping을 통해 사후 검증하였다. <표 5>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 수준은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안·밖거리형 가족일 때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유대감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동거가족, 별거가족의 순이다. 육지부의 노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최정혜,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갈등은 동거가족이면서 특히 노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경우에 별거가족보다 결속도가 높고 갈등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립할 때 노부모의 손자녀관계의 질도 높아지는 것과 대비해 볼 때 손자녀간의 관계에서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는 결과로

<표 5> 가족형태 및 그 밖의 관련변수에 따른 조모-손자녀 유대관계

구 분	집 단	조모-손자녀유대관계 M DG	구 분	집 단	조모-손자녀유대관계 M DG
가 족 형 태	동거가족	11.00	건 강 상 태	중 다	11.24
	안·밖거리	12.28 F=2.73*		보통이다	11.46 F=1.16
	별거가족	10.77		좋지않다	10.22
손자녀 성 별	남	10.68 T=-1.46	조 부 생 존	생 존	11.50 T=2.09*
	여	11.38		사 망	10.50
조 모 연 령	51~64세	11.68	경 제 활 동	한 다	11.56 T=1.20
	65~74세	10.62 F=1.40		않 는 다	10.65
	75~91세	11.42	모 의 취 업	취 업	11.01 T=0.10
조 모 학 력	국졸이하	10.24 B		비취업	11.01
	중 졸	11.24 AB F=2.96*	모 의 태 도	적 극 적	12.90 A F=
	고 졸	12.50 A		보 통	10.63 B 12.90***
	대 졸	10.97 AB		소 극 적	9.00 C

* P<.05 *** P<.001 DG:Duncan-Grouping

볼 수 있다. 그 밖의 관련 변수가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의태도와 조부의 생존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또한 조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연구문제 2 : 조모의 역할수행과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조모의 역할수행과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조모의 역할수행과 손자녀간의 유대관계의 상관계수

구 분	가 교 육 자 역할	가 조 력 자 역할	가 전 달 자 역할	손 자 녀 지 지 자 역할	물 질 적 공 자 할 역할	생 활 간 섭 자 할 역할	총 역할 수
상관계수	0.50***	0.49***	0.49***	0.83***	0.49***	0.18**	0.81***

** P<.01 *** P<.001

총 역할수행 점수와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의 상관계수는 .81(P<.001)로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총 역할수행 점수가 높아질수록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 점수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역할수행의 각 영역별로 살펴볼 때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와의 상관계수는 생활간섭자 역할 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18 P<.01)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는 .49(P<.001)에서 .83(P<.001)으로 나타나 각 영역별 역할수행 점수가 높아질수록 조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 점수가 높아져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에 대한 친밀감이 강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의 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졌으나 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취사분리형 안·밖거리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지역 가족의 조모-손자녀관계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여성노인 중에서도 근면성과 독립적인 성향이 비교적 강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지역 노년여성의 조모로서의 역할수행 및 손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대해 제주 시내 국민학교 5,6학년 손자녀의 직접적인 인식을 통해 조사하

였다. 이를 근거로 점차 소원해져 가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모와 손자녀 모두의 건전한 적응을 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생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 수행은 가정교육자 역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물질적 제공자 역할, 가사조력자 역할, 가계전달자 역할, 손자녀 지지자 역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간섭자 역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형태별 제주지역 노년여성들의 조모역할 수행은 전체적인 역할수행 점수보다는 각 영역별 조모역할 수행점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가사조력자 역할은 동거가족, 안·밖거리형 가족, 별거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모의 연령변수는 전체 역할수행 점수와 각 영역별 조모역할 수행중 물질적 제공자 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조모의 학력은 전체 역할수행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에 따라서는 각 영역별 조모역할 수행중 가사조력자 역할에서, 손자녀의 성별은 물질적 제공자 역할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모의 태도는 조모의 전체역할 수행에서 그리고 생활간섭자 역할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조모역할 수행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조모-손자녀간의 유대관계는 가족형태중 안·밖거리형 가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태도와 조부의 생존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모로서의 역할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유대감은 높아짐을 보여 주어, 조모의 역할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제주지역 가족의 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첫단계라 할 수 있으며, 위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기초자료의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더 많은 관련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선표집에 보다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척도작성시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척도의 작성 및 노년여성의 역할수행에 관한 조사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손자녀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조모의 관점에 의한 역할수행의 내용 및 손자녀에 대한 결속측면 또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조모-손자녀관계의 중재자 및 개입자로서의 모의 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내용구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병인 : 여성활동에 관한 연구 ·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77, 30~35p
- 경제기획원 : 한국의 사회지표, 1989.
- 구자순 : 한국여성노인 : 사회체계를 중심으로, 특집 : 한국여성노인의 실상과 대책, 1989, 100~102p.
- 김명자 · 강주령 : 가족관계에 따른 노년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2호, 1991, 185~240p.
- 김중숙 :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94~96p.
- 김태현 : 제주도의 노인생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1호, 1980, 99p.
- 김혜숙 :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편 논문집, 제17집, 제주대학교, 1984, 119~144p.
- 김혜숙 : 제주도의 일인가족연구, 사회과학편 논문집, 제20집, 제주대학교, 1984.
- 서동인 :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1989, 45~60p.
- 신용하 : 2천년대를 바라보는 제주인의 정신, 제민일보, 1990.6.2
- 양영웅 외 3인 : 한국문화속의 제주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발전방향, 사회발전연구, 제6집, 제주대사회발전연구소, 1990, 9~10p.
- 유양숙 : 재가노인의 생산실태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8, 28~29p.
- 윤종주 :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성장추이 및 현황, 한국노년학, 제8권, 1988, 7~8p.
- 이광규 :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사회학적 측면, 탐라문화 3,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4, 61~65p.
- 조병은 :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제10호, 1990, 107~112p.
- 조병은 · 신화용 : 맞벌이가족의 성인자녀 · 노모관계, 가정복지세미나 :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학회, 1991; 118p.
- 조옥희 :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1, 1p.
- 조혜정 :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편), 1982, 143~168p.
- 최인현 : 한국의 인구전환과 고령인구의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최재석 :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66, 19p.
- 최재석 :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21p.
- 최정혜 :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 학위논문, 1991, 42~44p.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의 의식구조 비교조사, 1984, 45p.
- 한창영 :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편 논문집, 제8집, 제주대학교, 1976, 188~189p.
- 한창영 : 제주도노인논고, 한일문화사, 1978, 177~190p.
- 현용준 : 사회·제주문화재 및 유적종합보고서, 1973, 72p.
- 현용준 : 제주도민의 검소생활, 제주도 62호, 제주도, 1974, 54p.
- 홍기형 : 노인문제와 가정, 노인문제와 노인교육,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4, 16p.
- Bengtson, V.L. : "Diversity and symbolism in grandparental roles". In Bengtson V.L. and Robertson J.F. (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985, 151~154p.
- Bengtson V.L. & Cutler N.E. :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 Perspectives on aging groups and social chang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eds.) Binstock R.M. and Shanas E., New York : Van Nostand Reinhold Co., 1976.
- Bengtson V.L. and Schrader S.S. : "Parent-child relations", In D. Mangen & W.A. Peterson (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2, Social roles and particip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42~48p.
- Cherlin A. & Furstenberg F.F. : "Styles and strategies of grandparent", In Bengtson V.L and Robertson J.F. (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985, 151~154p.
- Duvall E.M. and Miller B.C. :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6th ed.)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85.
- Kivnick H.Q. : "Dimensions of grandparenthood meaning : deductive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de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44, 1983, 1056~1068p.
- Kornhaber A. & Woodward, K.L. : *Grandparents/Grandchild: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Y : Anchor, 1981.
- Liang J. :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7(1), 1982, 100~108p.
- Markides K.S. & Martin M. : "A casu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1), 1979, 86~93p.
- Quinn W.H. :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983, 57~73p.
- Thomas J. :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grandparenting", *Journal of Gerontology*, 41(3), 1986, 417~423p.
- Thomas J. : "Gender difference in satisfacton with grandparent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Aging*, 1(3), 1986b, 215~219p.
- Thompson W. : "Effects of Bereavement on self perceptions of physical health in elderly widows and widowers", *Journal of Gerontology*, 39, 1984.
- Wood V. & Robertson J.F. : "The significance of grandparenthood", In Griun J. (ed.). *Time, roles, and self in old age*.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1976.